

변형의식 상태, ASC (3부)

| 토니 크리슈 | 김정림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변형의식의 다양한 상태에 대해 소개하고 그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ASC가 외부로 표현되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실제로 ASC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정상상태를 초월하여 경험하는 많은 다른 형태를 커버하는 우산과 같은 것이다. 몇몇 가능성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방법으로든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중에 깨어있는 동안의 자연발생적인 무의식적 정신적 이미지

실례 : 근무 중 사진현상용기에서의 공정이 진행되기를 기다리며 나는 사람이 마음을 수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

하였다. 그러자 즉시 내 마음에 친구의 딸인 다이아나가 선명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그동안 내가 거의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따라서 수용적이 되자마자 그녀가 떠오른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갑자기 그림이 바뀌고 어린아이로 대체되었다. 마치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것처럼 다시 또 바뀌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머리에 왕관을 쓰고 분명하게 소년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왔던 것과 다이아나 그리고 다이아나와 어린아이 사이의 어떤 개인적 연관 고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 10일쯤 후에 내가 다이아나의 어머니에게 전화할 일이 생겼을 때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고 나서 다이아나가 임신 증인가를 물었다. 그녀가 웃길래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도 모른답니다. 오늘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갔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이아나가 임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중에 아들을 낳았다.

• 소리 또는 음성을 감지하는 어떤 신체적 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소리 또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

실례 : 나는 명상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나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마음을 열면 신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어느 날 밤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잠에서 깼다. 돌아와 다시 침대로 다가갈 때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것은 아주 또렷해서 방안의 모든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았다. “너는 하느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질문했었지? 자, 이제 잘 보아라.”라고 말했다.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어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려고 자연스럽게 정신을 집중하였다. 그 날 밤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무언가 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곧바로 수년 전의 고통스런 감정과 기억들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깨끗하게 청소되는 느낌이었다. 이런 현상이 수년 동안 계속되었고 나중에 하느님과 완전하게 만날 수 있었다. (뎀)

- 과거의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경험하기 : 어떤 사물을 건드리면 그 대상과 연관되는 사람 및 사건과 함께 그것의 과거를 내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고고학자로서 뛰어난 업적을 남겨왔다.

-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몸 또는 마음을 집단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촉매가 되기 : 예를 들어, 캐더린 쿨만(Kathryn Kuhlman)이 저술한 ‘나는 기적을 믿는다(I Believe in Miracles)’라는 책 참조.

- 현재의 환경이 외부로 보이는 실체에 변화를 주기 : 마이클 텔보트(Michael Talbot)는 그의 저서 ‘홀로그램 우주(The Holographic Universe)’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우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ASC는 우리가 현실(또는 사실; reality)로서 경험하는 것에 변형을 일으킨다. 그래서 ASC상태로 들어가면 사람은 앉아있었던 방이 갑자기 목장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 자신의 신체 밖 어느 지점까지 확장되는 자각 :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의 비밀첩보기관들은 직원들로 하여금 서로의 활동을 원격투시하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의식의 투사-OBE(체의

이탈의 경험; out of body experience)-는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경험하는 일이며 ASC의 일상적인 형태이다.

- 자신을 우주라는 통합체의 한 부분으로,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였다고 깨달음

-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현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통찰: 때때로 이를 전생(前世)의 기억이라 부르지만 면밀하게 음미해보면 현재의 자아 이전의 삶에 연결된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한한 마음과 연결하는 능력과, 그렇게 되는 모든 것의 잠재력: 꿈속에서의 영감(靈感)에 대한 실례 참조. 이러한 형태의 ASC를 탐구했던 오로빈두(Aurobindu)는 이러한 지각수준이 처음에 보이는 것처럼 무한한 마음이 아니며, 신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보다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것의 총 합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속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음악에 대한 실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집단 의식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생생한 현존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그것은 더 나은 창조성과 표현으로 드러날 수 있다.

-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 ASC에서는 삶에 있어서 정반대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진실된 것과 진실되지 않은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에 의식의 상태가 도달한다. 이러한 상태를 불교에서는 공(空)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형체, 자아(또는 이기심), 확실성, 과거, 미래, 움직임의 시작점, 도달해야 할 목표도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자유를 줄 가능성도 또한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항상 이것이나 저것의 둘 중 하나이거나, 부분적으로 진실이고, 실체(reality)의 한 조각

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사람은 자기의 신을 남자 또는 여자로 보거나, 정직하거나 악한이라는 것으로부터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불교의 공(空)은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사람이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고, 기준으로서 아무 것도 목표로 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에너지와 의식의 광활한 바다에서 허찮은 정보 그 이상의 무엇이다. 태양을 생각하든, 먼지티끌을 생각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각은 다차원적이며 마지막 한계를 초월하는 것의 한정된 관점 이상이 될 수 없다.

- 발에서 머리끝으로 흐르는 에너지의 경험 : 이런 상태에서는 갑자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마치 높은 곳으로 날아가서 사물의 전체를 보게 되어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던 통찰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가 넓은 공간에서 동시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수월하고 빠르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스스로 '나는 곧 나이다'라고 선언하는 삶, 그 자체의 정수(精髓)인 위대한 음(AUM) 또는 아멘(AMEN) 만나기

- 죽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들로부터 어떤 형태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 정보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와 같은 감정의 형태일 수도 있고 통찰력 또는 언어의 형태일 수도 있다.

- 분실물 찾기 : 다양한 방법으로 감각기관을 확장하여 수맥 또는 광맥 찾기.

- 위대한 창조력의 경험 : 때때로 원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창조적 충동에 의해 강력하게 사로잡혀있는 것과 같다. 그동안은 오랫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또는 잠을 자지 않고 지낼 수도 있다.

- 화상을 입지 않고 불에 가까이하기 : 상처를 입지 않고 상처에 대

처하기, 고통 없이 부상에 대처하기, 반응 없이 독약에 대처하기,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

- 주변의 것들에 대한 통찰력 : 이것은 마치 갑자기 단순하게 사람의 육체적 형체, 피부와 옷의 색깔뿐만이 아니고 약간 기이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며,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그들 신체의 상태, 즉 건강상태는 어떤가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이때는 오라(aura) 또는 에너지장을 볼 수도 있다.

- 물체를 이동시키거나 또는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전류 또는 태우는 힘(a burning force), 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 사람이 명상하는 대로 그 사람의 신체에 나타내기 : 성흔체험자(聖痕體驗者 : 라틴어로 stigmata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몸에 생겼다고 전해지는 상처 또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저절로 나타난다고 전해지는 예수가 받았던 상처와 유사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피오신부(Padre Pio)는 주님의 손톱을 명상을 통해 그의 손에 나타나게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라도 자기의 피부에 빠르게 나타나게 할 수가 있다. 나의 6인의 죄수(My Six Convicts)라는 책의 16장에서 도널드 파웰 윌슨(Donald Powell Wilson)박사는, 그가 연구했던 죄수들 중의 한 사람인 하데드(Hadad)가 그의 피부에 어떤 모양의 장식이라도 나타나게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하데드는 또한 교도소에 근무하는 여러 명의 의사들에게 교도소의 정신병동에서 종종 의 간질 때문에 오는 고통스런 발작을 어떻게 3일 동안이나 멈추게 할 수 있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었다.

문명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에서는 ASC가 사람의 영적 생활의 한 부

분으로 심리적 또는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장소에서 사냥을 하고, 짐작자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전쟁을 한다면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추구되어 왔다. 찰스타트가 저술한 《ASC》라는 책의 초반에서, 그러한 문명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ASC를 경험할 수 없을 때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서구문명에서 사람이 가끔 정신착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 외에는 그런 경험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커다란 불행이자 오해이다. 당신의 개인성이 지닌 창조력과 놀고 즐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당신의 근본적인 영성과 확장된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그에 접근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축복이다.(끝) 

- 이 글은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에서 발췌했습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토니 크리슈** | 토니는 지난 50여 년간 사람들의 내면적 삶을 다루는 작가로, 테라피스트로, 교사로 일해왔다. 특히 그는 우리 일상의 깨어있는 삶 아래 놓여있는 낯선 차원의 세계들로 탐험하는데 대부분의 생애를 바친 진정한 탐구자이다. 홈페이지: <http://dreamhawk.com>

역자 | **김정림** | 대전대학교 대학원 교수, 한국요기연수원장